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어린이 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교육관
청년 모임	주일 오후 3시 30분	교육관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7시	음대 강의실
한민 말씀방	매일	단체 카톡방

주일 예배 봉사위원

	01. 01	01. 04	01. 11
대 표 기 도	이상호 목사	이상호 목사	이윤선 성도
성 경 봉 득	김정규 형제	정환영 형제	이윤선 성도

교회소식

1. 함께 예배드께서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온라인 헌금 안내 – 십일조(Zehnt) 감사(Dank) 선교(Mission) 구제(Erlösung)
주일헌금(Kollekte)을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용도)
3. 신년 예배 – 1월 1일(목) 오후 2시에 드립니다(신년 감사헌금 드립니다)
4. 성찬예식 – 1월 4일(주일)은 성찬예배로 드립니다. 기도로 준비합시다.
5. 신년 기도회 – 1월 5일(월) ~ 10일(토) 오전 8시 음대 강의실에서 모입니다.
6. 12월 생일 – 장래황(6일) 공지원(13일) 정이령(15일) 김대철(17일) 김정규(22일)
7.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 모입니다.

교우동정

고국 방문	오서진 자매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주일학교
십 일 조
감사헌금
성탄헌금
합계(Euro)
온라인헌금(12월)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롬12:1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신 기 훈 형제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7, 29,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온라인 헌금 안내
예금주 : Jin Soon Chung
IBAN : DE26 2905 0101 0012 0638 48
BIC : SBRED 22XXX믿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홈페이지 : 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찬양 Gemeindelied	-----	Liebevoll 찬양팀
*송영 Chor	-----	반주자
*기원 Altargebet	-----	이상호 목사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Gemeindelied	549장	다같이
기도 Gebet	-----	정환영 형제
성경봉독 Predigttext	고전 15 : 58(신p285) (1.Korinther 15:58)	정환영 형제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헌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	이상호 목사
설교 Predigt	수고와 눈물 속에 피어난 감사	이상호 목사
*파송찬양 Abschlusslied	나의 영원하신 기업(1,3절)	다같이
*축도 Segnungsgebet	-----	이상호 목사
*송영 Chor	-----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마침은 섬김입니다”

† 현금은 예배당 입구에 놓인 현금함에 넣어 주세요.

기도제목

1. 예배봉사자와 청년 섬김이들, 청년들의 진로(진학, 취업, 결혼)을 위해
2. 영적, 육적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을 일으켜 주소서
3. 황희순 집사님, 백승민 자매에게 회복의 은총이 임하도록
4. 함께 아름다워지는 교회가 되도록 – 선교, 구제, 영성훈련에 힘쓰는 교회
5. 김선택, 장보경(헝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은혜는 약속의 통로로 흐른다

우리에겐 아직도 정복해야 할 많은 땅이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처럼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막치려 하는 모든 것을 뿌리뽑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괴롭히는 염려와 걱정들을 제거하고 싶어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소생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복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친히 이루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같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에게 힘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 역시 그분을 힘의 근원으로 삼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분의 약속의 통로를 따라 흘러들어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들을 먼저 우리에게 행하셔야 우리가 그분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근원이시며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흘러나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풍성한 축복 / Jim Cymbala 목사(브루클린 성막교회 담임)

소 모임을 위한 질문

1.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공부, 알바가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 사랑에서 나온 섬김과 인정받기 위한 섬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